

회원 늘리려면 이렇게 해주세요

‘회원들은 점점 나이 들어 직장을 떠나는데 새로 가입하는 회원은 없고...’ 같은 직장,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400여 신행단체들의 슬직한 고민이다. 더 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원을 늘리기 위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원의 상당수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단체들이 있다. 모임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의 방법과 패턴을 조금만 바꾸면 동료들을 도반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요한 점은 모임을 알리고 내실을 기하는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직능단체들의 회원 수급문제의 활로는 활발한 활동과 적극적인 포교에서 찾을 수 있다. 사진은 소비보호원 불자회 회원들의 대화포교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장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불자회 입장에서 보면 좋은 포교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전문 포교인력 키워라

22개 모임으로 구성된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회장 김해수, 이하 철불협)는 포교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효율을 기하는 대표적인 단체다. 철불협 회원이면서 조계종 포교사인 19명의 포교 전문인력으로 포교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것. 여기에는 일부 핵심인력의 주도로 모임이 운영되는 직장단체의 특성이 고려됐다.

철불협 포교위원들은 직장단체의 주요 포교수단인 1대1 포교에 적극적이고 나름대로 전문화되어 있어 회원을 늘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신행활동의 길라잡이 역할과 법우회 장립, 연대활동을 주도하는 핵심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찬연 철불협 포교위원장(성북구사무소)은 “어느 모임이나 현실적으로 활동할 포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인재를 키우고 활용하는 것은 직장단체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특별활동 · 전자우편 홍보 등 효과

정기법회 · 성지순례 꾸준히 ... 전문화된 '1대1 포교'

#활발한 활동이 최상의 홍보

전체 1800여 직원 가운데 5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청 공무원 불자들의 모임 유마회(회장 권대용, 1988년 2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된 이후 이처럼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신심 깊은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에 있다.

창립 초기 고전을 면치 못했던 유마회는 정기법회는 물론 성지순례, 불우이웃돕기 등 유마회의 활동을 시청내 모든 사무실에 알리면서 회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시청내 인트라넷 게시판을 물론, 모든 직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했고 산하기관까지 공문을 보내 유마회의 활동을 소개했던 것.

여기에 유마회는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들의 종교파악에 나섰고, 불자들을 대

으로 1대1 접촉을 시도했다. 유마회는 이 방법을 통해 특별한 성과를 얻었다.

활발한 활동이 최상의 홍보라고 강조하는 박영홍 유마회 총무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모임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인식시켜줄 때 회원도 는다”고 조언한다.

#성지순례 활용하라

경향신문 불자회(회장 김종두)는 바쁜 업무로 회원들의 직장내 신행활동이 잘 이뤄지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게다가 창립 초기 열정이 점차 식으면서 법회 참석률이 점점 떨어져 존폐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경향신문 불자회는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는 성지순례(사진)를 탈출구로 삼았다. 회원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에게 성지



순례를 개방하면서 회원의 참가자가 생겨났고, 이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며 모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현재 회장을 맡아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종두 회장(신문연구소 수석 연구원)도 성지순례에 참가했다가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다.

김종두 회장은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에서 탈피하고 싶은 막연한 동경을 갖고 있지만 바쁜 업무에 매여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며 “직장모임에서 떠나는 성지순례는 직

청불회, 활안 스님 지도법사 추대

“불자 소양, 국정 운영 수행하는 지혜 배울 것”



김인식 청불회 수석부회장(논어준비서)은 “청불회원들은 앞으로 불자로서의 소양

과 국정운영을 수행하는 지혜를 배워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불회는 또 7월 1일 수계법회를 개최하는 한편, 매일 한차례 열고 있는 정기법회에서 회원들이 다양한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인군 사찰과 스님들을 초청해 신행을 다짐 예정이다.

활안 스님은 상원사, 칠불암, 범어사 등 제방선원에서 40년간을 성만하고 순천 송광사 천자암 조실로 1999년부터 조계종 원로의 원이다.

박봉영 기자

우리단체 이사람

박병주

부산 사하구청 불자회 총무



“태평양은 아무리 넓어도 단 한 사람의 갑종도 풀어줄 수 없지만 작은 우물은 지나는 사람들의 목을 축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끌어주는 편안한 인연이 되고 싶어요.”

부산 사하구청법우회(회장 장일웅)에는 ‘작은 우물’ 같은 사람이 있다. 박병주(42·정혜) 총무다. 97년 1월부터 법우회 활동을 시작한 그가 총무를 맡은 것은 2000년.

그때부터 자신이 직접 관리하

일·수행 모범적인 불자

‘구민을 부처님처럼 존중’

높이고 있는 장본인이다.

“태평양은 아무리 넓어도 단 한 사람의 갑종도 풀어줄 수 없지만 작은 우물은 지나는 사람들의 목을 축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끌어주는 편안한 인연이 되고 싶어요.”

또한 박총무는 회비 납부를 자동이체로 바꾸어 들쭉날쭉하던 회원수를 40명 선으로 확보하고, 봄 가을 삼사순례나 부산시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최익두) 주최 행사 때도 회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해 동참률을 높이고 있는 장본인이다.

그 모든 일을 뒤에서 챙겨나가면 서도 박총무는 “하는 일이 없다”며 겸손해 한다. 오히려 장일웅 회장과 장영석 수석부회장 등이 정신적 지주처럼 받치고 있어 편안하게 심부름을 할 수 있다고 공을 돌리기에 바쁘다. 무색, 무항의 물 맞처럼 내세우지 않은 박총무의 신행은 부산공무원불자연합회 일까지 내 일처럼 챙기며 많은 사람들을 불자로 이끄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

박총무는 10주년을 맞아 법회 자료집 발간을 준비해 서두르고 있다. 늘 금강경을 독송하고 108배로 마음을 맑히는 작은 우물, 박총무가 있어 법우회 회원들은 그 우물가로 모여든다. 천미희 기자

김태영 문서수법회 대표 법사가 일러주는 직장내 포교

나로부터 인재양성, 스스로 포교 인력돼야



다른 사람에게 불법을 전하는 것은 본인이 확고한 신심과 확신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불자라면 당연히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며, 전법하지 않으면 진정한 불자라 하기 힘들다. 전법은 불교를 믿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적인 포교는 직장동료들이 포교하고자 하는 이의 생활을 보고 ‘불교를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나로부터의 인재양성, 즉 스스로 포교인력이 돼야 한다.

회사내 모든 직원이 열람가능한 인트라넷 게시판을 경구와 불자모임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군 사찰·기관에서 기도·정진·법회를 진행해야 한다. 신입직원 교육이나 직원연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종단이나 사찰의 도움을 요청하면 큰 도움이 된다.

“호국·지역민 위해 발원합니다”

서울 은평구청·영주승무사사무소 불자회

직장불자들이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지역민을 위한 서원을 담은 기원행사를 마련했다.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김은혜)는 6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진관사에서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와 공동으로 호국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이번 법회에서는 은평구청 불심회원들의 호국·지역민을 위한 기원문 낭독과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장 성운 스님의 법어, 임승섭 서

울시의원의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 법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주민에 대한 표창과 모범학생·상이군경 자녀 20여명에게 장학금도 지급한다.

앞서 현충일인 6월 6일에는 영주기관승무사사무소 법우회 주최로 영주충혼탑 앞에서 호국천도재를 열었다. 영주승무사사무소 법우회는 호국영가의 위패가 봉안된 충혼탑에서 1991년부터 15년째 천도재를 개최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탱화의 미적가치에서 각각의 의미까지 전달 신비한 불화의 세계



사람들이 만나는 많은 종류의 탱화들, 그 안에 다양한 불보살들이 각기 다른 형상으로 표현돼 있지만, 그 명호들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불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비한 불화의 세계>는 부처님을 주존(主尊)으로 하는 상단탱화, 보살을 중심으로 그린 중단탱화, 신중과 천왕 등을 형상화한 하단 탱화 등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종류별로 선보여 우리를 불화의 세계로 한걸음 다가서게 합니다. 소개되는 불화들은 박정자씨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명작의 붓끝으로 살아난 부처님 형상의 장엄미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박정자 지음 / 광진문화사 / 3만원 / 양장본 올 컬러 / 신국판

부처님을 진전하는 사불(佛) 수행

한국 최초 사불 교본 출간!! 붓끝 하나하나에 환희심을 담은 사불수행!! 이제 내안의 부처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권 | 249쪽/50,000원 | 2권 | 269쪽/55,000원 | 3권 | 187쪽/20,000원 | 4권 | 156쪽/15,000원

● 사불 교본 1,2,3,4 (책크기 : 4절 395 × 545mm)

- 1권 - 탱화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상단, 중단, 하단 독존도의 탱화초와 부모은중경, 팔상도, 비천상초를 그리고 채색할 수 있다.
- 2권 - 관음 32응신도와 42수관음, 천수천안관음의 출현, 53불을 매일 그리고 채색하여 예불할 수 있다.
- 3권 - 만다라와를 그리고 채색하여 초파일 연등에 붙이거나 법당이나 가정에서 심에 깨어 부처님을 정엄할 수 있다.
- 4권 - 삼신불, 팔대보살, 시왕님을 그려보고 채색할 수 있다. 사찰에서는 지정제일에는 지정보살을, 관음제일에는 관세음보살을, 약사제일에는 약사여래를 그려 부처님 복장에 넣어 모시거나 법당 부처님 좌복에 모시고 기도하여 신심을 높일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 박정자

사불수행이란?

조금은 생소한 수행법이지만 이미 고려시대부터 사경과 함께 널리 행하여 그 찬란한 빛을 발했으나 역 불정척의 과정에서 맥이 끊어지고 지금은 사경활동만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불수행은 사경보다 쉬워 남녀노소가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마음속의 부처님을 눈으로 확인하며 신심을 다져 가기 때문에 불자들의 신심을 마음 깊이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안의 부처와 하나가 되는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불이라는 또 다른 수행으로 삼천리 방방곡곡 우리들의 절마당에서 모든 불자들이 천백여화신의 부처님을 사불하여 금수강산을 불국정토로 이루고자 발원하오니.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만하 박정자 합장

주문전화 061)333-4472 (은행계좌에 입금 후 전화하시면 택배로 배달) 국민은행 073-01-0289-484 / 농협 637015-52-036279 예금주 박정자